



2011 WATER KOREA



물산업의 밝은 미래를 확인한 2011 국제상하수도전시회

세계 물산업의 미래를 논한 진정한 국제 상하수도인의 대축제 2만 4천여 명 관람, 국내 물산업의 지표를 제시했던 '열정의 나홀'

12개국 175개 업체 참가, 뜨거운 관심 속에 순조롭게 끝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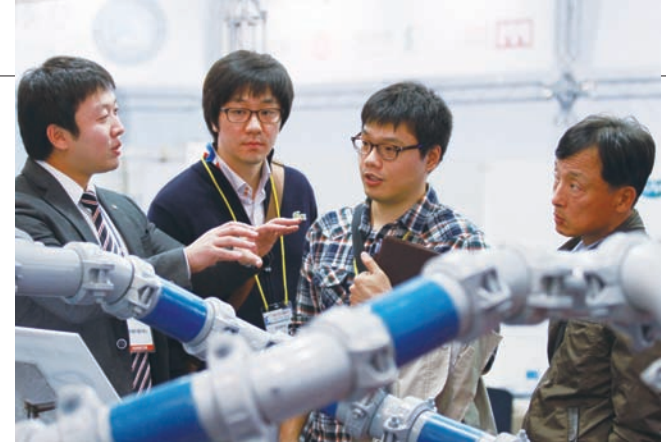
가을 하늘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가운데 개최된 2011 WATER KOREA in Daejeon이 폐막한 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10번째의 행사를 보다 내실 있게 치러낸 WATER KOREA는 이제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상하수도 관련 전문 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11년 행사는 국내 최고의 전시회라는 타이틀을 넘어 국내 물산업의 세계 진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행사였다. 우리 협회와 대전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175개 업체가 570 부스 규모로 참가했다. 참가 업체 및 부스 수가 최근 3년간 평균 150개 업체 450 부스를 꾸준히 상회하며 전시회는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상하수도 관련 기자재 전시회 외에도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연계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세계와 함께 물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다

2011년 행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연계 행사는 단연 물산업 관련 해외인사 초청 프로그램이었다. 협회는 행사에 앞서 6개국 22인의 해외 기관 인사를 초청했다. 이와 연계되어 WATER KOREA 첫 행사인 개막식이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되었고, 행사 첫날인 10월 31일 오후에는 해외인사 70명과 국내 상하수도 관련 인사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물산업 컨퍼런스(International Water Industry Conference)'가 개최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국가별 상하수도의 현황과 정책 방향, 신규 프로젝트 및 사업 전망 그리고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아울러 상하수도 분야의 상호협력력을 위해 베트남 상하수도협회 및 인도네시아 수도사업자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이들 해외 인사들은 행사 둘째날 4대강 보 및 국내 상하수도 시설을 둘러보며 한국의 상하수도 기술 및 고도화 시설을 견학했다.

우수 기술력 대내외의 알리는 계기

이번 WATER KOREA에서는 국제 물산업 컨퍼런스와 더불어 다양한 연계 행사가 진행되어 상하수도인의 눈길을 끌었다.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에서는 참가 자치단체의 기술 수준이 월등히 우수해져 지자체 간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이 펼쳐졌다. 종합 시상에서는 부산광역시가 특·광역시 부문에서 1위, 도를 대표해서는 강원도가 1위의 영광을 안았다. 더불어 기타 자치단체도 최고의 기량을 과시하며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내보였다. WATER KOREA는 상하수도 분야의 기자재 전시회뿐만이 아닌 무형의 우수한 기술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첨병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은 공동 주최로 상하수도 업무 개선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자치단체들은 현장에서 경험한 실질적인 업무 개선 사례를 각각 발표하며, 기관간 정보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총 21편이 발표되었으며, 상하수도 산업 현장 종사자들의 시설 운영 개선 및 연구 사례 보고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 생생한 정보가 제공됐다. 아울러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는 『물 재이용 촉진법』의 주요 내용 및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좋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물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고, 아울러 수자원 관리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이러한 값진 정보를 한 곳에서 모두 접할 수 있게 해 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감사한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물산업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발판

WATER KOREA는 해를 거듭 할수록 규모나 내용 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참여 기업의 신기술 및 제품 개발을 홍보하는 마케팅, 기술정보 교류의 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했으며, 지자체와 해외 참관인들에게 국내 상하수도의 지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부스별로 선보인 업체들의 신제품 및 기술력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을 선보이며 국내 물산업의 밝은 미래를 예고했다. 전시회를 관람한 지자체의 상하수도 담당자는 "최근 물산업이 국력을 가늠하는 미래의 주요 사업으로 대두하면서,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수도물의 품질 개선을 통해 국내 상하수도 관련 기업 육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제상하수도전시회가 이런 맥락과 함께 국내 물산업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상하수도전시회로의 비상

전 세계는 향후 효율적 물관리를 기반으로 한 국가 서열의 재배치가 예고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부응하여 세계 물시장 진출 및 선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WATER KOREA는 국내 물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세계 물산업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와 기술력을 제공하는 전시회로 그리고 세계 물시장과 국내 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국내 최고의 물산업 전시회가 해내야 할 과제이자 의무일 것이다. ☺





2012 WATER KOREA

국제상하수도 전시회 International Exhibition on Water & Sewerage

2012. 3. 19.(월) ▶ 22.(목)
KINTEX(경기도 일산)

| 주최 |  한국상하수도협회
KWWA KOREA WATER AND WASTEWATER WORKS ASSOCIATION

| 후원 |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2012 WATER KOREA 국제상하수도 전시회 단위행사 안내

International Exhibition on Water & Sewerage



● **개막식**
일시 2012. 3. 19^월 10:30~13:20
장소 KINTEX 전시장 로비 및 회의실
대상 협회장, 환경부 장관 등 30명 내외
내용 환영사, 자랑스러운 상하수도인 시상, 테이프 커팅, 전시장 투어, 주요 인사 오찬



● **국제상하수도 전시회**
일시 2012. 3. 19^월 ~ 3. 22^목 10:00~17:00
장소 KINTEX 전시장 5홀
규모 10,611㎡
내용 기업체 전시관 : 배관류 등 8개 업종 기자재 및 기술 전시
홍보관 : 지자체의 사업자 통합 홍보관
특별관 : 막, 설계, 시공, 운영 등



● **2012년 정기총회**
일시 2012. 3. 19^월 14:00~15:00
대상 협회 회원(약 200명)
내용 2011년 회계결산 승인



● **국제 물산업 컨퍼런스**
일시 2012. 3. 20^화
대상 상하수도 관련 해외 공무원 및 전문가
내용 국가별 상하수도 현황 발표



●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기간 2012. 3. 19^월 ~ 3. 22^목 4일간
내용 3.19 먹는물 수질개선 발표회(먹는물수질검사기관협의회)
3.20 상수도 연구 발표회(상수도연구기관협의회)
3.21~22 2012년 공동 춘계 학술 발표회(한국물환경학회 · 대한상하수도학회)
- 상하수도 포럼(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 **폐막식**
일시 2012. 3. 22^목 16:30
장소 KINTEX 전시장 로비
참석인원 시상기관
내용 종합시상 및 기업시상